

# 통계청의 성인지적 통계생산 현황과 정책과제

---

- ▶ 일시: 2003년 2월 11일 (화) 14:00-17:00
- ▶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5층 국제회의실

## 초대의 글

---

안녕하십니까? 언 강물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봄을 재촉하는 계절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재미년의 서두를 장식하는 첫 포럼으로 “통계청의 성 인지적 통계생산 현황과 정책 과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성 주류화로의 이행을 시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 인지적 통계는 성 주류화를 위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의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성 인지적 관련 통계 및 지표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성 인지적 통계 생산을 위한 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국제세미나에서 논의된 성 인지적 통계생산 전략을 기초로 하여 통계청의 생산 현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의 포럼은 통계청이 현재 직접 생산 중인 성 인지적인 통계를 부문별로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을 기초로 여성부와 관련 부처, 연구자, 여성단체들과 함께 구체적인 성인지적인 통계생산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유익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2월

한국여성개발원장 장 하 진

# 행사일정

---

사회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장)

14:00-14:15 인사말  
장하진(한국여성개발원장)

14:15-15:15 주제발표

발제 I 통계청 성인지적 통계생산 개황  
장경세(통계청 사회통계과장)

발제 II 세부 통계분야별 성인지적 통계생산 현황  
고용통계 최연옥(통계청 사회통계과 서기관)  
가계소비 정인숙(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사회통계 정화옥(통계청 사회통계과 서기관)

15:15-15:30 휴식(음료 및 다과)

15:30-16:00 지정토론  
문유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애령(여성부 여성정책담당관)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순경(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진영(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조사연구부장)

16:00-17:00 종합토론

17:00 폐회

## 목 차

1. 고용통계 .....	1
최연옥(통계청 사회통계과 서기관)	
2. 가계소비 .....	9
정인숙(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3. 사회통계 .....	23
정화옥(통계청 사회통계과 서기관)	
4. 한국의 성 인지적 통계 현황과 정책과제 .....	32
문유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고용통계

---

최 연 옥 (통계청 사회통계과 서기관)

## 고용통계의 유형

- 사업체 조사 :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노동력유동 실태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 가구조사 :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 가구조사의 조사방법

- 유업자접근법(Gainfully Occupied Worker)
  - 노동력접근법(Labor Force Approach)
  -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
- ※ 직업안정소 방식: 등록통계

## 노동력접근법의 특징

- 단기고용통계 작성 목적
- 짧은 조사대상기간 설정
- 구체적 활동을 기준으로 구분
- 취업자 우선구분
- 엄격한 조사기준의 설정

## 노동력접근법의 주요 개념

- 노동가능인구 :  
잠재적 활용가능한 총노동력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에 참여중인 사람, 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실업자도 아닌 사람

## 취업자의 정의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자
  -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
  -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자
- 수입: 임금 혹은 이윤
- 일: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

## 실업자의 정의

- 조사대상기간중 다음의 조건 충족
  - 수입을 목적으로 전혀 일하지 않았음(No work)
  - 구직활동을 수행(Job search)
  - 취업이 가능했던 사람 (Available to work)

## 실업의 유형

- 경기적 실업 : 경기변화에 기인
- 마찰적 실업 : 탐색적 실업
- 구조적 실업 : 기술변화 등에 기인
- 계절적 실업 : 계절적 수요변화에 기인

##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목적 : 거시고용지표의 작성
- 조사연혁 : 1982년 7월 이후 월별 실시
- 조사가구 : 전국 약 34,000가구
  - 2000년 센서스기준, 1,629개 조사구
- 조사대상: 매월 15일 현재 만15세이상

- 조사대상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 조사방법: 정규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CAPI 방식의 도입)
- 결과공표: 익월 22일경 조사결과 공표
- 통계청 홈페이지 수록([www.nso.go.kr](http://www.nso.go.kr))
- 경제활동인구조사월보 발간
- CD-ROM 수록 발간

## 주요고용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
  -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노동력 중 실제 활용되는 노동력의 비중
  - $(\text{경제활동인구} / \text{15세이상인구}) * 100$
  -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변화
  - 계절 및 경기상황에 따라 변화

## 계절조정실업률

- 계절에 따른 실업률의 변동을 조정
  - 연초 상승, 연중 하락, 연말 상승
  - 농림어업, 건설업과 신규졸업자의 영향
- 예년의 계절적 변동폭을 감안하여 조정
- 경기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이용

## 구직단념자

-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직활동을 포기
- 국제기준의 부재, 각국마다 상이한 기준
  - 미국의 경우 94년에 110만에서 60만으로
- 99년 11월분 부터 공표

## 불완전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로 정상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한 취업자
  - 노동시간, 기술, 교육, 작업환경 등 관점
- 국제기준의 부재, 각국마다 상이한 기준
- 우리나라는 18시간 미만 취업자중 추가 취업희망자 기준 공표 중

## 비정규직 근로자

- 현재 통계청에서 비정규직 통계는 작성하지 않음
  - 상용, 임시, 일용으로만 분류
- 비정규직에 대해 통일된 개념이 없음
  - 노사정위원회 : 한시근로 + 시간제 근로 + 비전형근로자
  - 노동계 :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 임시, 일용직
- 국제적으로도 기준 부재, 각국마다 상이한 기준

## 가계소비

---

정 인 숙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 도시가계조사 개요

2003. 2. 11

통 계 청  
사회통계과

## 목차

---

- 1 통계청 가계조사
- 2 도시가계조사 개요
- 3 수지항목 분류 체계

## 1. 통계청 가계조사

### • 종 류

- 도시가계조사
- 가구소비실태조사
- 농가경제조사
- 어가경제조사

## 2. 도시가계조사 개요

가. 조사연혁	바. 조사대상기간
나. 조사목적	사. 조사사항
다. 조사대상	아. 현장조사
라. 표본추출	자. 결과공표
마. 조사방법	차. 단계별업무내역

## 가. 조사연혁

- 1951 ~ 1962 : 한국은행에서 조사(200가구)
- 1963 년 1월 : 통계청으로 이관
- 1963 ~ 1968 : 도시 1700가구 조사
- 1969 ~ 1974 : 식료품비만 가계부기장방식
- 1975 ~ : 전비목 가계부기장방식
- 1982 ~ 1994 : 소비지출 9대비목
- 1995 ~ : 10대비목으로 확대
- 2003~ : 가계조사로 확대 실시

## 나. 조사목적

- 도시간구의 소득수준 및 소비구조의 변화 측정
- 지출형태 파악
- 소득 분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 주요자료 이용의 예

- 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자료
- 공공사업 시행시 주거대책비산정
- 영세민 구호사업, 근로자임금결정 기준, 국민주택공급대상 기준
- 국민소득 추계 기초자료

## 다. 조사대상

- 전국 도시(79개시 중 69개시)에 거주
- 가구원수가 2인 이상
-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
- 전국의 가구 대표도 : 63.0%

# 2003년 부터 조사대상 확대 : 전국의 읍면지역까지 확대(표본규모 5500에서 약 7500 가구로 확대)

### ♣ 가계수지통계 대표도 개선 계획

- 1단계(2003년) : 전국가계조사 실시  
(전국대표도 : 75.6%)
- 2단계(2003년) :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소득자료와 접속  
(대표도:84.5%)
- 3단계(2004년) : 1인가구 조사방법  
개발(대표도 : 100%)

### ♣ 조사제외대상(부적격가구)

- 농어가, 1인가구, 비혈연가구
- 외국인가구
- 영업수지와 가계수지의 분리가 곤란한 가구(예:음식점, 여관, 하숙을 하는 병용주택가구)
- 부정기적인 출타가구

## 라. 표본추출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
- 표본추출방법
  -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층화하여 계통추출(가계조사는 25개 지역)
  - 표본크기 : 약5,500 가구  
(2003년부터 약 7,500가구)

## 마. 조사방법

- 가계부기입조사 : 가계수지항목
- 면접조사 : 가구실태항목

## ♣ 가계부 기입요령

- 소득
  - 어떤 종류의 소득인가
  - 누구의 소득인가
  - 몇 월분 소득인가
- 지출
  - 개별 품목명을 기입(상추, 사과)
  - 외상구입
  - 각종 세금내역 등

## ♣ 응답률

- 가계부 회수율 : 약 82%
  - 주요 무응답 사유
    - 매일 가계부 기입이 곤란
    - 개인 사생활 노출 꺼림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새로 전입한 가구
  - 기재 능력이 없는 가구
  - 불응가구
- 응답유도  
간접기입  
**imputation**

## 바. 조사대상기간

- 1달(매월 1일 ~ 말일)
- 전달 말에 가계부 배부
- 다음달 초에 가계부 회수

## 사. 조사사항(1)

- 가구실태 관련항목(12개)
  - 가구주 및 가구원의 인적사항
  - 가구유형에 관한 사항
  - 주거 및 연간소득에 관한 사항

## 사. 조사사항(2)

- 가계수지 관련항목(565개) (296)
  - 수입(36) : 소득, 기타수입 등 (31)
  - 지출(529) : 현금, 월부 및 외상 (262)

## 아. 현장조사

- 전국의 12개 지방사무소 및 35개 출장소의 정규조사직원이 조사 수행
  - 각 사무소(출장소)에 팀장이 있어 조사원관리
- 응답가구
  - 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매일 기입
    - \* 주된응답자(주로 주부)가 적는 수지사항
    - \* 기타 가구원이 적는 사항
    - \* 은행 자동입출사항

## 자. 결과 공표

- 매월 조사된 가계부는 분기별로 집계하여 공표
- 분기별 자료는 「한국통계월보」
- 연간자료는 매년 5월말경에 「도시 가계연보」로 발간
- **KOSIS** - 분기 및 연간자료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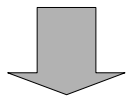
## 차. 단계별 업무내역(1)

### <지방사무소>

실지조사



- 가계부배부
- 가계부기입지도
- 가계부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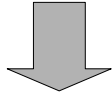
## 차. 단계별 업무내역(2)

### <지방사무소>

조사표 내검 및  
온라인입력



- 가계부내용검토
- 누락사항보완
- 부호기입, 내검
- 자료입력
- 기계내검



## 차. 단계별 업무내역(3)

### <본청>

DATA오류심사



가계부내용검토



조사결과집계

## 차. 단계별 업무내역(4)

분기조사 결과  
집계 및 분석



조사결과 공표(분기)



보고서 발간(연간)

## 3. 수지항목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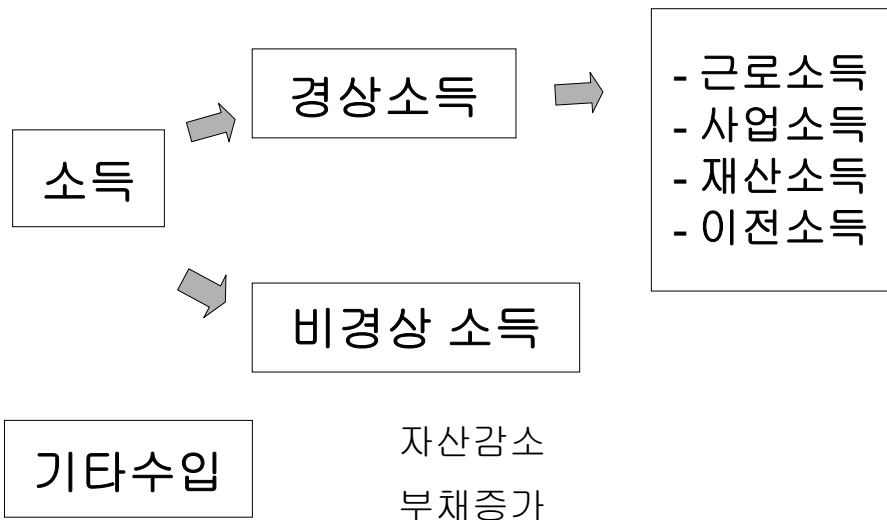
### ♣ 항목분류 방법

- 품목별 분류(ILO)
- 용도별 분류(OECD-COIC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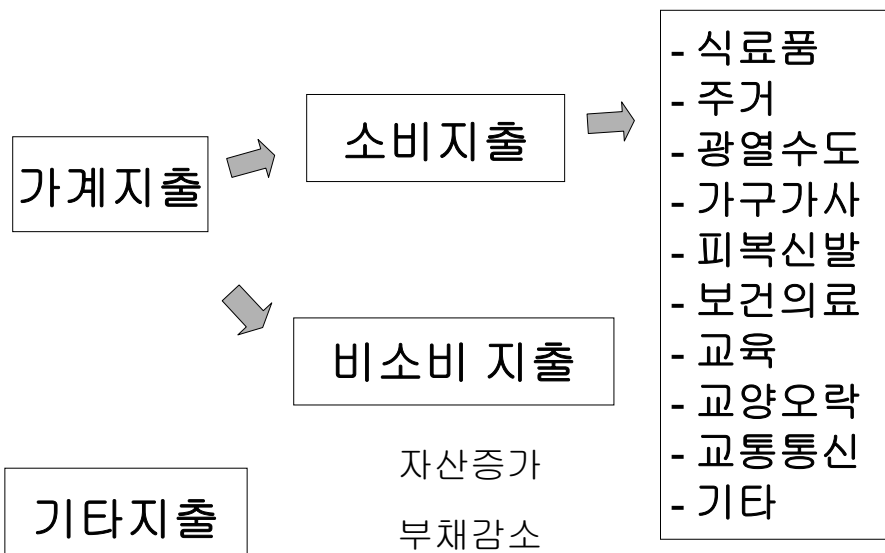
♣ 수입 : 36개 항목(31)

♣ 지출 : 529개 항목(262)

## 수입 : 36개 항목(31개)



## 지출 : 529개 항목(262개)



## 사회통계

---

정 화 옥 (통계청 사회통계과 서기관)

## 社會指標, 社會統計

- ✎ 2003. 2. 11.
- ✎ 鄭花玉
- ✎ 042-481-2275
- ✎ okchung@nso.go.kr

사회통계조사

경제발전  
물량조사

의식조사  
필요성대두

사회통계조사(77)  
사회지표체계수립(78)

## 社會指標의 沿革

- ✔ 1972年 U.N. 統計委員會 第17次 會議 勸告
- ✔ 韓國은 經濟開發에서 社會開發 方向轉換
- ✔ 1975年 UNFPA(U.N.活動基金)財政支援 研究
  - 調查統計局, 韓國開發研究院 共同
- ✔ 1977年 最初 社會統計調查
  - 韓國의 社會指標 체계 설계 (1978)

## 韓國의 社會指標 意義

- ✔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的 狀態를  
總體的, 集約的으로 나타냄
- ✔ 生活의 量的, 質的인 側面까지 測定
- ✔ 國民生活의 全般的인 福祉程度를  
把握可能하게 하여 주는 尺度

## 社會指標의 機能

- ✔ 社會政策的 機能
  - 特定政策 評價, 社會計定 體系設定
  - 政策樹立 機能
- ✔ 社會變動的 機能
  - 社會 狀態 및 變動測定
  - 삶의 質 등 經濟指標 補完
- ✔ 社會보고적 機能
  - 社會情報體系 改善
  - 將來社會問題와 生活狀態 豫測

## 한국의 사회지표 관련 통계

- ✔ 한국의 사회지표(1979부터 매년 작성)
-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1977부터 매년 작성)
- ✔ 청소년 통계(2002년부터 매년 작성)
- ✔ 고령자 종합통계집 발간
  - (2003년 10월 처음 발간 예정)

## 社會統計調查

### ✔ 目的

- 韓國의 社會指標 作成을 위해 既存 統計에서 作成되지 않는 項目 調査
- 主觀的 意識이나 社會的 關心事와 삶의 質과 關聯된 項目 調査

## 調査對象 및 調査方法

- ✔ 標本：經濟活動 人口調査 對象 家口
- ✔ 對象：全國약30,000家口內 15歲以上 家口員
- ✔ 調査實施：統計廳 地方統計事務所
- ✔ 調 查 員：地方統計事務所 調査職員
- ✔ 調査方法：面接調査 원칙

## 社會統計 調查部門(12個 部門)

- ✔ 情報와 通信, 文化와 餘暇, 教育(2000年)
- ✔ 住居와 交通, 安全, 環境(2001年)
- ✔ 家族, 福祉, 勞動 (2002年)
- ✔ 保健, 所得과 消費, 社會參與(2003年)

## 調查票 設計過程

- ✔ 意見收集
- ✔ 實務者會議
- ✔ 專門家 會議
- ✔ 試驗調查
- ✔ 社會分科 委員會 상정 審議
  - 조사표 확정
- ✔ 試驗調查

## 사회지표와 사회통계비교

### 한국의 사회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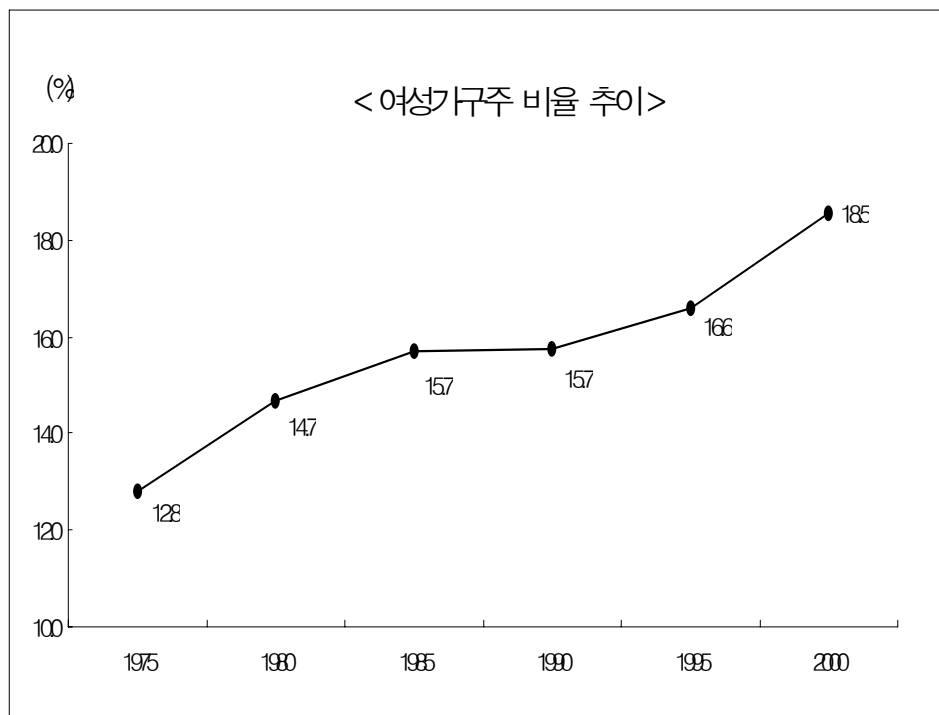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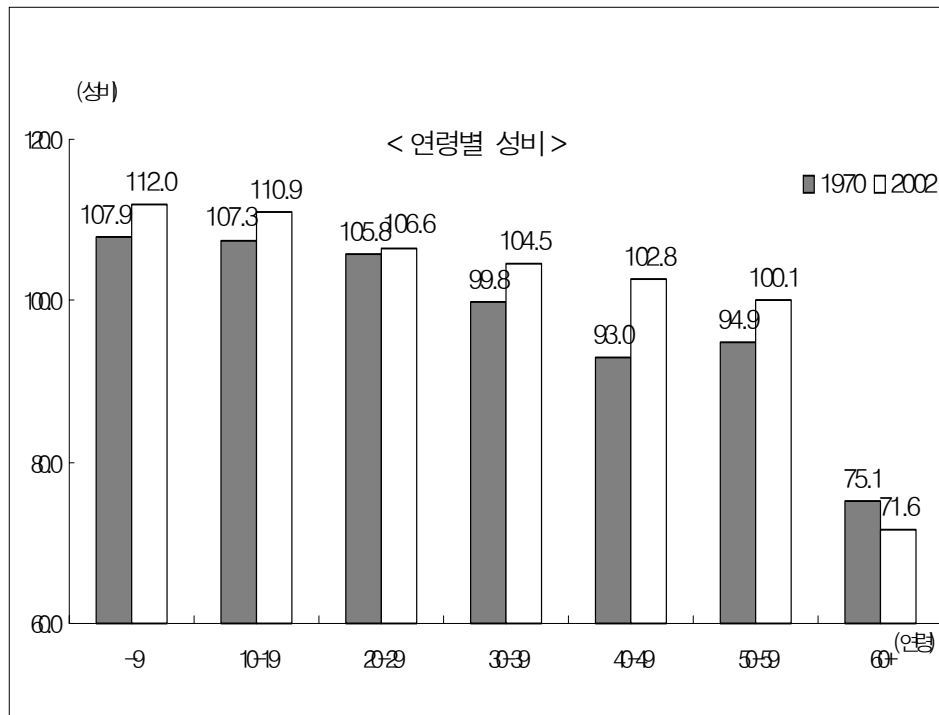
- ✔ 체계구성
  - 기존 작성된 각종통계
  - 사회 각 부문 관심영역
- ✔ 사회전반적인 흐름 파악
- ✔ 가공통계
- ✔ 13개부문
- ✔ 1979년 이후 매년 발간
  - 1979부터1995년까지 사회통계 조사 결과 수록

### 사회 통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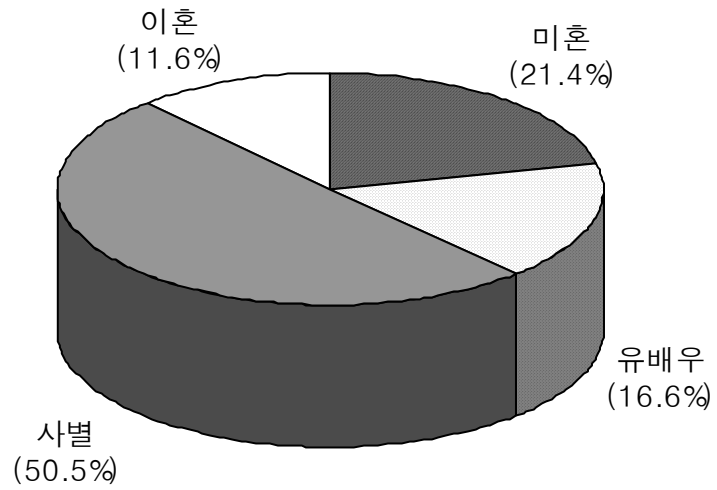
- ✔ 기존 각종 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은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주관적 의식 등 조사
- ✔ 국민의식 파악에 유용
- ✔ 조사통계, 면접조사
- ✔ 12개부문 조사(인구제외)
- ✔ 1996년 이후 보고서 발간
  - 1996년 이전은 한국의 사회지표에 공표

## 결 과 공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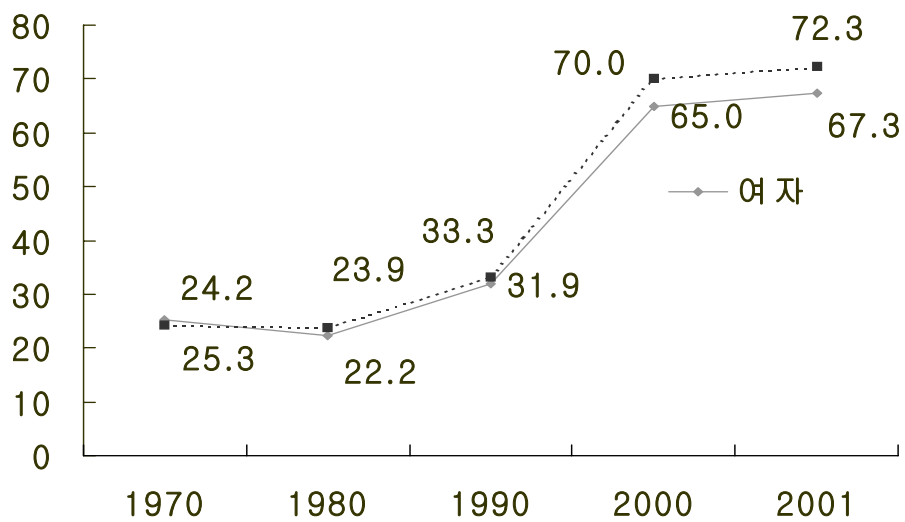
- ✔ 사회통계조사 : 2월 - 3월
- ✔ 한국의 사회지표 : 12월
- ✔ 청소년 통계 : 5월
-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7월
- ✔ 고령자 통계 : 10월



### <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2000) >



### 대학진학률



## 한국의 성 인지적 통계 현황과 정책과제

---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1. 서론

성 인지적 통계와 여성통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성통계가 여성에 대한 혹은 여성만을 위한 통계라면 성 인지적 통계는 관심의 대상이 모든 통계로 확장되고, 남녀의 통합을 중요시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즉 여성정책의 WID(Women in Development) 접근에서 Gad (Gender and Development) 접근으로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성 인지적 통계란 단순히 남녀로 분리된 통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불평등한 현상을 철폐하기 위해 관련되는 모든 측면에서의 통계를 의미한다. 여성의 불평등한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평등한 상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성별 분리 통계의 집계를 넘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통계를 개선하고, 보다 여성의 활동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를 새로 개발하는 적극적 작업이 요구된다. 적극적인 통계의 생산과 개발에 더하여 각 국가에서는 여성정책만이 아닌 모든 정책의 수립과 평가시 성 인지적 분석결과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다.

통계의 중요성은 1960년대 UN을 중심으로 사회지표개발작업이 착수된 이후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지표를 통하여 사회변동의 추세와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1960년대 시작된 이래 사회지표의 개발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 여성의 사회지표 혹은 성 인지적 통계의 필요성은 1975년에 UN의 세계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이래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에서는 ‘성별 분리 자료와 정보의 생성과 배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성 인지적 통계 구축은 이와 같이 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한 주요 도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성 인지적 통계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성 인지적 통계의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의 현황 및 개선점,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 분석과 발표측면에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추후 필요한 통계의 내용과 생산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 2. 법과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한국의 정부통계의 생산과 보급은 통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2. 11. 1일 현재 통계법 제8조(또는 제9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432종으로서 지정 통계 80종, 일반통계 352종이다.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는 219종, 보고통계는 167종, 가공통계는 46종이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322종(통계청은 56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10종이다. 통계작성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 등 7개 유형으로 총 138개 기관에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표 1> 유형별 통계작성기관수

유형	기관수	대표적 기관
중앙행정기관	29	통계청, 노동부, 건설부 등
지방자치단체·교육청	37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융기관	1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공사·공단	19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연구기관	10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협회·조합	25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타기관	7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data source: Internet homepage of NSO, <http://www.nso.go.kr>

한편 통계청의 기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설정을 주요 기능으로 들고 있다.

<표 2> 통계청의 주요 기능

1.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형 통계제도의 운영에서 오는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통계작성기관, 통계조사현황)</li> <li>-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종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및 개정(표준산업분류·표준직업분류·행정구역분류·무역분류·질병사인분류 등)</li> </ul>
2. 국가기본 통계의 생산(작성통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등</li> <li>- 표본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광공업동태조사 등</li> <li>- 분석통계 : 경기종합지수, 생명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li> </ul>
3. 통계정보의 종합 관리 및 통계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주요통계정보의 종합관리</li> <li>- KOSIS(통계DB)를 통한 통계서비스 제공</li> <li>- 통계간행물 보급 및 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서비스</li> </ul>
4. 통계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기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연수부를 통해 통계전문인력양성, 통계의 올바른 이해도모</li> <li>- 교육대상 : 정부·민간통계작성기관 통계담당자, 통계이용자 등</li> <li>- 교육내용 : 통계작성기법, 현장조사기법, 통계활용방법 등</li> <li>- 통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각종 통계기법의 연구</li> </ul>

출처: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는 우리나라의 통계생산제도가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으로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국가의 기본통계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 통계청의 선두 역할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위와 같은 기능을 고려할 때 성 인지적 통계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 담당 조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내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으며, 성 인지적 통계 관련 담당업무는 여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에는 성별통계작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에서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표 3>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①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25조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과제로는 성 인지적 통계생산 전담부서 설치, 필수 성 인지적 통계지표 생산 활성화, 성별항목 신설 등 각종 보고통계의 보고양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부,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2002)

여성부에서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관련한 업무로는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을 위한 세부계획(「Producing the gender cognitive statistics: 행정부문」 2001),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 가이드라인의 마련(「Structuring of gender cognitive statistical data, 1999),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는 6개 부처의 통계발간물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Moon(2001), Product Method of Sex Cognitive Statistics: Administerial Area) 성 인지적 통계지표의 개발(「Producing the gender cognitive indicator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2), 시간사

용조사를 통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등이 있다.

여성부의 성 인지적 통계 업무는 성 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통계에서의 성 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부의 성격상 통계생산의 성 인지적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 부처와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통계에 대해 여성부가 개선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국가의 기본통계를 생산하고, 다른 부처의 통계업무를 조정, 선도하는 통계청에 성 인지적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함으로써 정부통계의 젠더링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통계청 이외의 중앙부처나 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개선 역시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여성부가 시범적으로 통계의 성 인지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통계의 문제점을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다. 또한 여성부의 권고가 다른 부처내 통계 생산부서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까다로운 조정업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은 통계청 내 성 인지적 통계생산 업무 지정과 조직의 신설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의 정보 및 통계 담당 부서에 성 인지적 통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처의 통계생산에 대한 성 인지적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이들 조직과 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첫째 해당 부처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의 젠더 분석과 개선에 대한 업무협조, 둘째 통계담당자의 젠더 의식 교육, 셋째 성 문제와 관련된 특별조사 실시 등이다. (Moon(2001), Product Method of Sex Cognitive Statistics: Administerial Area)

### 3. 부처별 통계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 과제

통계생산의 주무부처인 통계청과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는 6개 부처 및 여성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를 중심으로 성 인지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는 6개 부처의 생산통계가 분석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부처에 비해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담당실이 부처 내 통계담당관실의 업무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통계생산의 성 인지적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첫째 조사개념의 성 평

등성 둘째 개별통계의 조사 또는 수집에서 분석, 발표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별 분리 여부, 셋째 통계주제가 성차별의 원인과 현상 파악 및 대책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 가. 조사개념 설정의 문제들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에서 조사개념의 설정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통계 수준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개념이 설정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현상에 대한 추상화의 과정에서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경제활동에 관한 개념들이다.(문유경 외(2001),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남편은 밖에서 일을, 아내는 집에서’라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경제활동에 해당되는 여성의 노동(특히 농업노동)을 간과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임시로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의 개념들은 여성의 취업상태를 불충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 1) 무급가족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80-90%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해당된다. 1982년의 국제 노동 통계인 회의(ICLS)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의 동반자의 개념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주당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자로 간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18시간 이상자의 경우만 취업자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중 18시간 미만자는 약 0.998%로서 (문유경 외(2001)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50 p.) 큰 규모라 할 수 없다.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만 취업자로 간주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임금근로자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유경(2002),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 2) 실업

일반적으로, 실업의 국가적 정의는 일자리의 총 부족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한 주의 짧은 조사기간동안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된다. 적극적 구직활동은 실업에 대한 국가의 정의에서 중심적인 개념이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탐색의 주요 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표의 적용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노동교환이 도시에만 가능하고 지방에서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사실상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직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기준은 힘들다. 또한 구직자가 공공이나 민간 직업소개소에 의뢰하거나 신문의 채용광고를 이용하기보다는 비공식 경로를 이용할 경우도 실업자의 기준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자를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자로 정의하고 있다. IMF 체제도입 이후로 공식적인 실업통계가 실업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의해 실업관련 조사표 문항을 추가하여 1999년 11월 이후 개편된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사표는 미국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대체실업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다양한 실업률에 대한 산정기준과 통계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여성의 실업규모 측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자보다 잠재실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실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원자료를 분석한 1996년의 경우 남성 2.9%, 여성 3.1%로 여성이 높으며, 경기침체기인 1998년은 공식실업률에 비해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대폭 증가해 남성은 9.3%, 여성은 10.8%로 여성은 공식실업률의 약 두 배 가까운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 김태홍, 문유경(1998),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 이와 같이 여성의 경우 실망실업자를 포함한다면 실업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실망실업자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 이들 집단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 3) 일시 휴직

취업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일시 휴직자에 대한 파악이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일시휴직자를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1995)」에는 이에 추가하여 “가족의 병”, “사업체의 사정(기계고장, 원료 미확보, 화재 등)”과 함께 “여성 취업자로서 출산휴가중이나 직장에 반드시 복귀할 것이 명확한 경우”를 덧붙이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정의 중에서 휴가, 병가 등의 휴직은 해당자가 상용직 등 확실한 직장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하며, 만일 취업자가 일용직이거나 좌판, 행상 등의 영세자영업자일 경우 이들이 취업자인지 아닌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여성취업자의 경우 이러한 일시 휴직자의 기준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개념의 정확한 개념이 요구된다고 본다.

#### 4) 가구조사 시 가구주의 설정

가구조사시 가구주 위주로 조사와 분석이 실시됨으로써 주로 가구주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 기혼여성들의 상황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된다. 우선 가구주의 설정시 실질적으로 그 집안의 주요 수입원이 누구인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가구주는 곧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가구주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독신가구 등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구주 개인의 인구, 경제, 사회적 특징 등으로 가구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가구주위주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실생활에서 남성보다 가족의 수, 연령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여성들이 가족과의 직접적 관계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자녀의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통 가구조사에서 자녀는 가구주와의 관계만이 조사되고, 기혼여성 역시 가구주와의 관계만이 조사되기 때문에 가구주의 배우자가 가구주의 자녀의 어머니일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통계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가구조사시 가구주에 대한 개념설정과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나. 조사표의 성별 분리의 여부

모든 통계는 생산과정에 따라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및 편집통계로 나뉘어 진다. 조사통계는 조사설계와 조사표작성, 조사실시 분석, 발표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반면 보고통계는 보고양식의 설정과 보고통계의 수집으로 그 과정이 비

1)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5권 경제활동』 (1997), pp. 10-11.

교적 간단하다.

유엔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 206(a)에서는 모든 개별통계는 성 및 연령별로 수집, 편집,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기초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통계의 조사표 문항에 성과 연령 문항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문유경(1999),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통계청의 작성통계 49종에서 통계이용을 위한 조사와 편집, 가공통계를 제외한 조사통계 총 34개의 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이중 개인관련 문항이 있는 조사가 28개로 나타난다. 28개 조사의 조사표의 성별 연령별 범주가 있는 지를 보면 분석 결과 통계청의 대부분의 조사는 성별 연령별 문항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인구와 고용부문의 조사, 물가, 가계, 소비부문, 보건, 사회, 복지부문, 농림, 수산부문 등의 조사는 조사표 작성단계에서는 성별 분리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산업관련 조사들은 성별, 연령별 문항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개인관련 문항은 대표자와 종사자 두 집단에 해당하는데 사업체의 실태에 조사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 혹은 종업원에 대한 비중이 적어 이 두 집단에 대한 조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사업체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 문항이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요청에 의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997년부터 대표자의 성별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대표자의 성별에 따른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통계청 외의 6개 부처 통계 역시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표는 성별, 연령별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표단계에서의 문제는 보여지지 않는다.

#### 다. 분석과 발표에서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사표에 성별 연령별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과 발표단계에서는 이들 변수에 대한 분석과 발표가 누락되는 내용이 발생한다. 이는 모든 변수별로 분석과 발표를 하는 것은 비용의 제약상 불가능하며 업무담당자가 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하기 때문이다.

부처별 분석과 발표에서의 성별 분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통계간행물은 많은 부분에서 성별 분리표가 누락되어 있다.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성별 분리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 남녀를 구별하지 않은 채 다른 변수에 의해 분리된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젠더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교육통계연보」는 가장 성별 분리표를 완벽

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관련 통계일부와 교육전문직의 통계에 성별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석과 발표에서 성별 분리 누락에 대한 보충은 현재 두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는 원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하는 것과 둘째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는 원자료를 저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변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재분석이 가능하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여성통계연보」는 기존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성 인지적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기존에 발표된 통계는 재편집을 통하여 남녀비교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표하고 있으며, 발표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원자료를 구입하여 재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직업별, 산업별 분포, 취업모의 6세미만 아동유무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료를 분석할 때 부분적으로 변수의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의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변수로는 경기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실업률 관련 변수와 지역변수가 있다. 실업률 관련 변수 중 실망실업자 혹은 취업희망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통계는 여성의 실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변수는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여성의 실업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지역변수 역시 여성 지방정책의 수립에 필수적인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변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 현재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통계DB(KOSIS)를 이용할 경우 책자보다 훨씬 풍부한 성별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통계에 대해 성별 분리된 통계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제한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계청 이외의 일부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통계가 책자와 동일한 형태와 내용이라는 점이다. 즉 통계를 DB형태가 아닌 책자와 동일한 tabulation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책자에서 성별 분석이 아닐 경우 동일한 제약을 받게 된다.

조사통계에 비해 보고통계는 통계원자료의 분석 내지 재활용에 더욱 한계가 크다. 일반인들의 신고에 의해, 혹은 행정절차에 의해 수집되는 보고통계의 경우 대부분 보고양식을 갖고 집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많은 보고통계는 조사통계와 같이 원자료가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채 수집계되기도 하고, 이와 연동하여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도 DB 형태가 아닌 최종 tabulation만 제시하

는 경우가 많다. 보고통계의 경우 성별 분리통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고양식과 최종 발표형식을 모두 개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DB형식으로 전산입력되어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적합한 예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및 가구사항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보건복지통계연보]에 출간예정)

보고통계의 개선은 보다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데 이는 우선 보고양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내지 조례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정은 보고통계를 수집하는 담당자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담당자는 성 인지적 통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부처의 경우 여성정책담당실에서 「통계연보」를 분석한 후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통계표에 대해 해당과에 보고양식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협조가 되지 않아 「통계연보」의 개선이 무산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보고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담당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통계연보」의 경우 성공사례로 간주되는데 이는 여성부에서 「행정통계연보」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실시한 후 행정자치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통해 통계작성 담당자들에게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행정부문」 참조)

## 라. 조사 주제의 선정

성 인지적 통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계의 개선 뿐 아니라 새로운 통계의 생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부와 6개부처 여성정책 담당관실 및 여성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계의 생산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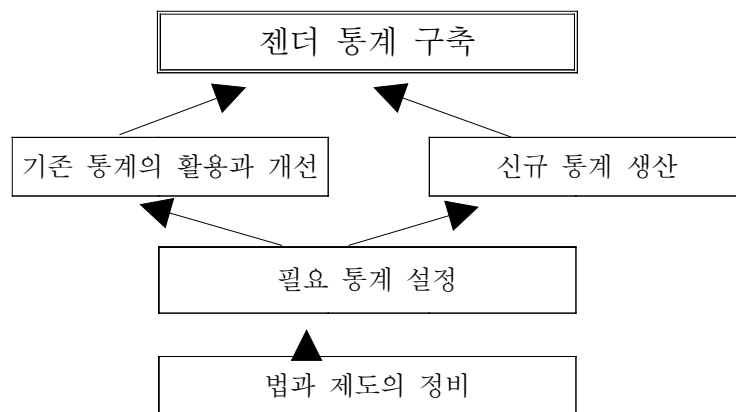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는 담당부처의 선정이다. 한국의 통계생산제도가 분산형임을 고려할 때 통계청이 모두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안별로 전부처에 해당하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통계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는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되 통계청의 기술자문을 구하는 것일 바람직할 것이다.

<표 4> 신규 생산이 필요한 통계

부문	관심영역	신규 생산이 요구되는 통계
인구	출산	결혼상태별, 태아출생 서열별 여아 인공임신 중절률
	출산	산모연령별, 시/군별 미혼출산율
가족	가구소득	가구소득에 대한 가구원의 기여도, 가구원의 가족내 역할과 결정권
	가사노동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사노동 조력자 유무와 지불비
	이혼	성별 재판이혼 제기비용 이혼시 친권양육권 분포 이혼시 이전소득
고용	실업	다양한 실업률의 정의에 따른 실업상황 실업보험으로 인한 이전소득
	비공식부문	5세미만 사업체 종사자와 행상, 가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취업상황
	근로조건	직종별, 기업규모별, 직급별, 성별, 연령별 성희롱 경험률
	육아휴직,	산업별, 직종별, 성별, 연령별 신청자 수와 신청기간, 복귀율
	가족간호휴직	산업별, 직종별, 성별, 연령별 신청자 수와 신청기간, 복귀율
교육	보육	보육시설의 성별, 자격별, 경력별 교원수
	사회교육	성별, 과목별, 교육기관별, 지역별 사회교육 참여 현황
농업	무보수노동	자급농업과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
보건	생리	초경발현 연령분포와 연령별 폐경률
	출산과 사망	산모연령별, 원인별, 시군별 제왕절개율
	출산과 사망	산모연령별, 원인별, 시군별 사산율
사회 복지	공적 연금	성별, 연령별, 연금종류별, 근로자대비 가입비율, 건당 평균 급여비, 가입기간, 보험료지불액, 현재 급여수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여성의 연령별, 노동상태별 여성가장세대, 모자세대 현황
		지역별, 연령별, 성별 생활보호대상자 분포
	보살핌노동 지원서비스	지역별, 설치주체별, 모의 취업유무별, 아동의 연령별, 보육시설 설치현황, 서비스 주 이용자 현황, 수요조사 및 이용률
		지역별, 설치주체별, 모의 취업유무별, 아동의 학년별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설치현황과 이용자, 수요조사 및 이용률
	폭력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특성, 발생건수 등

#### 4. 결론 및 정책제언<sup>2)</sup>

지금까지 성 인지적 통계와 관련된 법과 제도 및 생산된 통계를 중심으로 현상과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성 인지적 통계의 구축은 다른 통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실행에 의해 가능하다.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간략하게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문유경, 전기택(2001),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행정부문

<그림 1> 젠더 통계 구축 과정

##### 가. 법과 제도의 정비

######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에 성별통계작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에서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성별통계작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강제성이 적고, 성 인지적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가 통계생산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 법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 이에 정부의 통계담당부처인 통계청내에 성 인지적 통계 생산을 위한 부서의 설치가 필요함.

2) 문유경, 전기택(2001),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행정부문』에서 일부 인용.

## 2) 추진방향

- 통계생산조직신설과 담당자의 지정
- 여성부와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조정
- 자문위원회 또는 연구회 신설 또는 여성참여 비율 증가

## 3) 사업개요

- 통계청내에 성 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부서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정보 및 통계 담당 부서에 성 인지 통계 담당자를 지정함.
  - : 이들의 주요 업무는 첫째 모든 통계의 젠더 분석과 개선에 대한 업무 협조, 둘째 통계담당자의 젠더 의식 교육, 셋째 성 문제와 관련된 특별 조사 실시 등임.
- 여성부와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통계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 이중 역할을 수행함.
  - : 통계생산자의 입장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통계생산을 실시
  - : 통계수요자의 입장에서 통계청 등 통계생산담당부서에 필요한 성 인지 적 통계를 요청
- 자문위원회 또는 연구회의 신설
  - : 통계청 또는 여성부에 젠더 통계 연구회(가칭)을 구성하여 필요통계를 선정
  - : 기존의 자문위원회 또는 연구회에 여성참여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모든 통계의 젠더 분석

## 나. 필요통계설정

###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 인해 필요통계가 전 분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통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선 순위에 대한 정부의 안이 마련되지 않음

### 2) 추진방향

- 수요자 집단을 구성하여 필요통계를 설정

### 3) 사업개요

- 수요자 집단을 전문분야별로 구성, 일정기간 내에 필요통계의 내용과 우선 순위를 결정함
- 필요통계는 가용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화함. 첫째 조사차원에서 성별 항목이 없는 통계, 둘째 편집, 분석에서 성별 분리를 하지 않은 것, 셋째 기존의 조사항목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하여 재검토해야 되는 통계, 넷째 현재 가용한 통계의 활용으로는 불가능한 측정기법이나 개념의 개발이 필요한 통계.
- 첫 번째와 두 번째 등급의 통계문제는 단기계획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등급의 문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

## 다. 기존통계의 활용과 개선

###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 중 젠더 문제와 관련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성별분리하여 조사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통계가 있음.

### 2) 추진방향

- 기존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성 인지적 통계를 생산함.
- 통계담당자들의 인지도 제고

### 3) 사업개요

- 기존통계의 조사주제, 조사설계와 진행, 조사표, 발간사항에 대한 젠더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의 모색
  - : 조사표의 성별항목의 삽입을 위해 해당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
  - : 원자료에는 있으나 발간에서 누락된 통계는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통계표를 추가.
- 통계담당자의 교육: 성 인지적 통계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 교육의 주요내용은 첫째 성 인지적 통계의 개념과 필요성, 둘째 성 인지적 통계생산의 국제적 추세와 국내 현황, 셋째 성 인지적 통계생산 전략 등이 될 것임.
- 통계사용자들의 통계에 대한 관심제고와 사용접근능력을 위해 통계책을

다양한 형태로 발간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

- : 편집통계는 지표위주로 작성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함. 통계의 내용은 일반통계(예: 「한국의 여성과 남성」)와 분야별 통계(예: 「여성  
과 경제」)로 나뉘어 질 수 있음.
- : 「젠더 통계 소재정보」 혹은 「젠더 통계- 중요성과 이용방법」 등의 통계  
이용을 위한 책자의 발간
- : 「성 평등과 통계», 「한국의 평등지표」등의 주제로 세미나 개최

## 라. 신규통계개발

### 1)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시간사용조사]는 여성의 무보수 노동의 측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조사로 효용성이 매우 컸으며, 무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정책예의 반영에 다른 국가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음. 이와 같이 적절한 신규조사는 정책수립에 매우 효과적임.
- 그러나 신규통계의 생산은 장기간의 계획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신중을 기함.
- 생산이 필요한 통계는 앞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부문에서 매우 다양함.  
이를 요약하면 인구와 건강부문에는 인공임신중절률, 제왕절개율, 사산율 등이며, 가족과 관련해서는 여성가구주의 빈곤, 가족내 가구원의 역할, 이혼 관련 통계들이다. 고용부문은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와 실업 및 비공식부문의 통계가 시급하다. 사회복지부  
문에는 공적연금 부문에서의 성별 수급현황에 대한 통계, 보육시설과 방과후 아동시설 등의 보살핌노동지원시설 현황, 폭력에 대한 통계들이  
거론되고 있다.
- 우리 나라의 통계생산체제가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단위의 통계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지방여성정책의 수립이 어려움.
- 성 불평등 이외의 모든 형태의 불평등, 예를 들어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노령자 등에 대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통계가 미흡함.

## 2) 추진방향

- 특정주제에 대한 통계생산
- 지역통계 생산
-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통계생산

## 3) 사업개요

- 특정주제에 대한 통계생산은 통계청의 성 인지적 통계담당부서 혹은 여성부,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관장하며,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통계생산체제를 확립함
  - 지역통계생산을 위해 생산방안을 점검하며 중앙 통계생산부서와의 협력 또는 자체 사업으로 성 인지적 통계를 생산.
  - 모든 형태의 불평등한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생산.
  - 평등지표를 개발하여 전국단위 혹은 지방단위의 평등정도를 평가,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함.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 발표함. (스웨덴의 “Equal X” 참조).
- :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의 하나로 삽입.

## 참고문헌

문유경, 전기택(2002).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성 인지적 지표생산 방안 연구」 (여성부)

문유경, 주재선, 전기택(2001). 「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여성개발원)

문유경, 전기택(2001).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행정부문」 (여성부)

문유경, 주재선, 이성림(2001).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1994-2001, 매년), 「여성통계연보」

김태홍, 문유경(1999).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문유경(1999),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ECE/UNDP(2000). Workshop on Gender Statistics for Policy Monitoring and Benchmarking (Orvieto,

UNDP(1995-2000, each year), Human Development Report.

- UN(1990,1995,2000),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 New York
- Adriana Mata Greenwood(1999). "Gender issues in labour statistic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8 no 3.
- ILO(1982).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Thi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Rapph Turvey(ed)(1989).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London: Pinter Publishers.
- UNDP·UNSD·ILO(1998). Report 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Issues in Labour Force Statistics.
- 伊藤陽一 編著. 1994. 「女性と統計 ―ジェンダー統計論序説―」 辛出版社
- Status of Women Canada et al (eds.)(1999), Gender Equality Indicators: Public Concerns and Public Politics. Ottawa.
- Birgitta, Hedman, Francesca Perucci, Pehr Sundström. Engendering Statistics: A tool for Change, Statistics Sweden, 1996
- Bregger, John E. and Steven E. Haugen. "BLS Introduces New Range of Alternative Unemployment Measures." Monthly Labor Review, vol. 118, no.10 (October 1995).
- Eeva-Sisko Veikkola. "Gender Statistics in Finland",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Joint ECE/INSTRAW/UNSD Work Session on Gender Statistics(Geneva, 20-22 April 1998), Working Paper No.10., ECE/INSTRAW/UNSD.
- Sorentino, Contanse. "International Unemployment Indicators, 1983-93." Monthly Labor Review, vol. 118, no. 8 (August 1995).
- Status of Women Canada. Finding Data on Women: A Guide to Major Source at Statistics Canada. Ottawa: Status of Women Canada, 1998.
- UN. Handbook for Producing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on Women and Men. New York : UN, 1997.
- UN.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5. .New York: UN, 1995.
- UNRISD. Improving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Women Using Household Survey. 1988.